

## Session 13 Proven Character: Responding to Pressure (1 Sam. 26) 제 13 장 연단된 성품: 어려움에 대한 반응 (삼상 26 장)

### I. PROVEN CHARACTER

#### 연단된 성품

- A. **Review:** A key issue in David's life was what he looked to as his "primary source" of promotion and resource related to fulfilling God's will in his life. He did not need Saul's favor to fulfill God's will for his life. We often look to people as our primary source, instead of seeing them as secondary.

**복습:** 다윗의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에 있어 자신을 높여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분을 "누구"로 보고 있었느냐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 사울의 호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우리 삶을 채우는 이차적인 공급원으로 보기보다, 주요 공급원으로 보곤 한다.

- B. Jesus entrusted Himself to the Father to be vindicated in the right way and in the right timing. The Lord will provide for and/or vindicate His people in His time and way. We entrust to God our future and all of our mistreatment by trusting in His leadership to answer in His way and in His timing.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주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공급해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

<sup>23</sup>*While being reviled, He [Jesus] did not revile in return; while suffering, He uttered no threats, but kept entrusting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 2:23; NAS)*

<sup>23</sup> [예수님께서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 C. God gives us many opportunities to say yes to His leadership. Proven character includes choosing yes *time and time again* in the face of pressure—persecution, temptation, or difficult circumstances. Transformation is not an automatic result of trials. It occurs as we *respond rightly* to God in faith.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다. 연단된 성품은 어려움(핍박, 유혹,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다시, 또 다시**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항상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할 때에만** 일어난다.

<sup>3</sup>*...knowing that tribulation brings about perseverance; <sup>4</sup>and perseverance, proven character... (Rom 5:3-4; NAS)*

<sup>3</sup>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sup>4</sup> 인내는 **연단** [새번역: 연단된 인품]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4)

- D. **Tribulation:** Everyone experiences pressures, such as physical or emotional pain, financial lack, various fears, being mistreated, etc. Persecution is the pressure that is mentioned most in the New Testament. Pressure causes us to *ask questions* about the purpose of our life, the condition of our life and relationship to God, and why we should persevere in pursuing God without quitting. It causes us to rehearse the consequences of persevering in God and of giving up (quitting).

**환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고통, 재정적인 부족함, 다양한 두려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의 일일 수도 있다. 핍박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어려움이다.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며, 왜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추구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인내하게 될 때와, 포기하게 될 때 (중단하는 것)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생각해보게 해 준다.

- E. **Perseverance:** This speaks of our *fortified resolve* to continually realign our heart to love, obey, believe, and pursue Jesus instead of giving up and giving in to sin and unbelief or drawing back from pursuing Jesus with all of our heart. Pressure causes us to work our “faith muscle.” Resistance training builds muscle. A butterfly’s struggle in a cocoon is necessary to develop its wings.

**인내:** 이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죄나 불신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거나, 예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믿고, 추구해나가기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는 **강화된 결심**을 말한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근력 훈련은 근육을 만들어준다. 나비가 고치 안에서 나오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은 날개를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 F. **Proven Character:** This speaks of a long-term change in our attitudes and actions. When we persevere in choosing to obey and we trust the Lord’s leadership, it leads to change in our character.

**연단된 성품:**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게 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될 때, 이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한다.

- G. The testing of 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which causes our character to mature (Jas. 1:2-4). Our obedience is not complete or mature until it is walked out consistently in the face of pressure. Patience is not just the ability to wait; it also involves how we act while we wait.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내며, 이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약 1:2-4). 우리의 순종은 어려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의 부분도 포함한다.

<sup>3</sup>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atience [perseverance]. <sup>4</sup>But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in character and faith]... (Jas. 1:3-4)**

<sup>3</sup>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이라 <sup>4</sup>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성품과 믿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3-4)

- H. David had three divine appointments in 1 Samuel 24-26 to determine if David would be like Saul. David was allowed to be in the “power position” on three occasions. He was given two chances to kill Saul—in *En Gedi* (24:5) and in the *Wilderness of Ziph* (26:8), plus he was in a situation to kill Nabal (1 Sam. 25). David managed his anger and trusted God with Saul in En Gedi (1 Sam. 24), but soon afterwards failed by responding in great anger to Nabal (1 Sam. 25). David learned from this and responded in a godly way the next time he was with Saul in the Wilderness of Ziph (1 Sam. 26).

다윗은 삼상 24-26 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번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며, 이를 통해 다윗은 사울과 같이 행동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윗은 세 번 모두의 경우에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는 두 번이나, 엔게디(24:5)와 십 광야(26:8)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한 번은 나발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삼상 25 장). 다윗은 엔게디에서 자신의 분노를 추스르고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삼상 24 장), 이내 나발에게 크게 화를 내며 반응함으로 실패를 맛봤다(삼상 25 장). 다윗은 이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십 광야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반응했다(삼상 26 장).

## II. DAVID WENT TO SAUL’S CAMP IN ZIPH (1 SAM. 26:1-5) 십에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간 사울 (삼상 26:1-5)

- A. The Ziphites informed Saul that David was hiding on the hill of Hachilah, just east of Ziph (26:1-2). David’s movements were being closely watched by the Ziphites, to provide intelligence reports to Saul. This was the second time they sent a delegation to inform Saul where David was (23:19). They feared David, reasoning that, if he became king, he might take revenge on them.

십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십의 동편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알려줬다(26:1-2). 다윗의 움직임은 십 사람들에게 의해 면밀히 관찰되었으며, 이는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이는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두 번째였다(23:19). 그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으며, 그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sup>1</sup>Now the Ziphites came to Saul at Gibeah, saying, “Is David not hiding in the hill of Hachilah, opposite Jeshimon?”<sup>2</sup>Then Saul arose and went down to the Wilderness of Ziph, having three thousand chosen men of Israel with him, to seek David in the Wilderness of Ziph. (1 Sam. 26:1-2)*

<sup>1</sup>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sup>2</sup>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 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삼상 26:1-2)

- B. In En Gedi, Saul wept in sorrow for treating David wrongly and admitted that he would one day be king (24:16-20). But now he sought to kill David again, showing that his sorrow was temporary.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잘못 대한 것을 슬퍼하며 울었고,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을 인정했다(24:16-20). 그러나 이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으며, 그의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C. David went to Saul’s camp to analyze the situation (26:3-5). Saul set up his military camp on the hill of Hachilah to gain a strategic view of the region (26:3). Abner was commander of the army.

다윗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울의 진영으로 갔다(26:3-5). 사울은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살피기 위해 하갈라산에 진영을 꾸렸다(26:3).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다.

*<sup>3</sup>And Saul encamped in the hill of Hachilah, which is opposite Jeshimon...But David stayed in the wilderness, and he saw that Saul came after him into the wilderness. <sup>4</sup>David therefore sent out spies, and understood that Saul had indeed come. <sup>5</sup>So David arose and came to the place where Saul had encamped. And David saw the place where Saul lay, and Abner...the commander of his army. Now Saul lay within the camp, with the people encamped all around him. (1 Sam. 26:3-5)*

<sup>3</sup>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sup>4</sup>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sup>5</sup>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삼상 26:3-5)

### III. DAVID AND ABISHAI ENTERED SAUL'S CAMP (1 SAM. 26:6-12)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다윗과 아비새 (삼상 26:6-12)

A. David and Abishai entered Saul's camp as the Lor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on them (26:6-12).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으며, 주님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셨다 (26:6-12).

<sup>6</sup>Then David answered, and said to Ahimelech the Hittite and to Abishai the son of Zeruiah, brother of Joab, saying, "Who will go down with me to Saul in the camp?" And Abishai said, "I will go down with you." <sup>7</sup>So David and Abishai came to the people by night; and there Saul lay sleeping within the camp...and Abner and the people lay all around him. <sup>8</sup>Then Abishai said to David, "God has delivered your enemy into your hand this day. Now therefore, please, let me strike him at once..." <sup>9</sup>David said to Abishai, "Do not destroy him; for who can stretch out his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and be guiltless?... the LORD shall strike him, or...he shall go out to battle and perish." <sup>11</sup>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stretch out my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But please, take now the spear and the jug of water...and let us go." <sup>12</sup>So David took the spear and the jug of water by Saul's head...and no man saw or knew it or awoke. For they were all asleep, because a deep sleep from the LORD had fallen on them. (1 Sam. 26:6-12)

<sup>6</sup>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sup>7</sup>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sup>8</sup>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창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sup>9</sup>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sup>10</sup>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sup>11</sup>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sup>12</sup>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삼상 26:6-12)

B. **Abishai:** He was the brother of Joab and the son of David's older sister Zeruiah who had three sons: Joab, Abishai, and Asahel. They were David's nephews (1 Chr. 2:16; 2 Sam. 2:18).

아비새: 그는 요압의 형제였으며, 다윗의 큰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중 하나였다. 그들은 다윗의 조카들이었다 (대상 2:16; 삼하 2:18).

C. **Ahimelech:** He was a Hittite mercenary like Uriah the Hittite (2 Sam. 11:3, 6). It was unusual for a man from a Hittite family to be accepted into David's inner circle.

**아히멜렉:** 그는 우리와 같이 히타이트인 용병이었다 (삼하 11:3, 6). 히타이트 가계가 다윗의 핵심층 인가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

- D. **A deep sleep:** The Lord caused a sleep to fall on Saul and 3,000 men (26:12). How did David know that the Lord would cause this sleep to fall on 3,000 men? The Lord did this in part to test David. Abishai interpreted this unusual event as proof that God delivered Saul into David's hands (26:8).

**깊은 잠:** 주님은 사울과 그의 3,000 명의 병사들 위에 깊은 잠을 주셨다 (26:12). 다윗은 어떻게 주님이 3,000 명의 병사들에게 깊은 잠을 주실 것을 알았는가? 주님은 이를 부분적으로는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 행하셨다. 아비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을 증명해주는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해석했다 (26:8).

- E. **Lord's anointed:** David did not look at Saul as his personal enemy, but as God's anointed king. David saw the Lord's authority on Saul. He was not afraid of Saul; rather, he trembled before God's authority because the Lord had commanded the Israelites not to curse their rulers (Ex. 22:28).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개인의 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여겼다. 다윗은 사울 위에 있는 주님의 권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출 22:28),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떨었던 것이다.

- F. **Guiltless:** Anyone who touched God's anointed king in a wrong way might suffer consequences.

**죄가 없겠느냐:** 누구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건드리게 되면 그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 G. **The Lord shall strike him:** David prophesied that the Lord would one day strike Saul. About two years later, the Lord did, in fact, kill Saul in a battle with the Philistines (1 Chr. 10:14). The Lord did this in His own time and way just as He did when removing Nabal by death (25:36-39). The recent situation with Nabal undoubtedly strengthened David's conviction about this.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언젠가 사울을 치실 것을 예언했다. 약 2년 후에, 주님은 이를 행하셨으며,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이셨다 (대상 10:14). 주님은 나발을 죽음을 통해 제거하신 것처럼 (25:36-39), 이를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행하셨다. 다윗이 최근에 나발에 대해 겪은 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일에 대한 그의 확신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 IV. DAVID SPOKE TO ABNER AND SAUL (1 SAM. 26:13-20)

다윗이 아브넬과 사울에게 말하다 (삼상 26:13-20)

- A. David shouted to Abner from the other side of the valley in the predawn darkness (26:13-16). They were at a great distance so they spoke loudly, allowing all the others to hear what was said. David asked Abner three questions that insulted him (26:15). Abner did not answer David.

다윗은 동이 크기 전 어두울 때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서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26:13-16). 그들은 상당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다윗은 아브넬을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며, 이는 아브넬에게 모욕적인 것이었다 (26:15). 아브넬은 다윗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sup>13</sup> Now David went over to the other side, and stood on the top of a hill afar off, a great distance being between them. <sup>14</sup> And David called out to...Abner...Then Abner answered and said, “Who are you, calling out to the king?” <sup>15</sup> So David said to Abner, “Are you not a man? And who is like you in Israel? Why then have you not guarded your lord the king? For one of the people came in to destroy your lord...see where the king’s spear is, and the jug of water that was by his head.”  
(1 Sam. 26:13-16)

<sup>13</sup>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sup>14</sup>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sup>15</sup>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sup>16</sup> ...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삼상 26:13-16)

- B. David’s appeal for reconciliation with Saul here is one of the best examples in Scripture (26:17-20). He applied what he learned from Abigail’s appeal to him (25:24-31), which had kept David from a grievous sin. David appealed to Saul’s heart by affirming his loyalty and presenting their conflict without accusing Saul. He focused on those who gave Saul false reports about him (22:10; 26:19). Rather than cursing Saul, David honored him calling him “my lord” and “the king” (24:8; 26:17).

다윗이 사울에게 화해를 청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26:17-20). 그는 자신을 심각한 죄에서 구했던 아비가일이 간청으로부터 배운 것을 적용했다 (25:24-31).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간청하되, 자신의 충성심을 확증해주며,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에 대해 말했다. 그는 사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다(22:10; 26:19).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기보다, 그를 “내 주여,” “왕이여”라고 부름으로 존경심을 표했다 (24:8; 26:17).

<sup>17</sup> Then Saul knew David’s voice, and said, “Is that your voice, my son David?” David said, “It is my voice, my lord, O king.” <sup>18</sup> And he said, “Why does my lord thus pursue his servant? For what have I done, or what evil is in my hand?” <sup>19</sup> Now therefore, please, let my lord the king hear the words of his servant: If the LORD has stirred you up against me, let Him accept an offering. But if it is the children of men, may they be cursed before the LORD, for they have driven me out this day from sharing in the inheritance of the LORD, saying, ‘Go, serve other gods.’ <sup>20</sup> So now, do not let my blood fall to the earth before the face of the LORD. For the king of Israel has come out to seek a flea, as when one hunts a partridge in the mountains.” (1 Sam. 26:17-20)

<sup>17</sup>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sup>18</sup>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sup>19</sup>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sup>20</sup>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삼상 26:17-20)

- C. *My son*: Saul called him "David, my son" as he did in their encounter in En Gedi (24:16; 26:17).

내 아들: 사울은 그가 엔게디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처럼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다 (24:16; 26:17).

- D. **What have I done?:** David asked why Saul was pursuing him and asked for clarification of his sin (26:18). David suggested that if it was the Lord stirring Saul up against him, then let him repent and make a sacrifice to God asking Him to restore the broken relationship and end the strife. But if their animosity was the result of slanderous reports against David by men in Saul’s court, then let the one who spoke falsely be judged by God. David described himself as Saul’s servant, not his enemy.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쫓고 있는지를 물었으며,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명확히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26:18). 다윗은 만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충동시켜 다윗을 대적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자신이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림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이 불화를 끝내주실 것을 구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사이에 있는 적대감이 사울의 궁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말로 인해 일어난 소행이라면, 거짓되게 말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말했다. 다윗은 자신의 사울의 종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 E. **Inheritance of the Lord:** David spoke of Israel as the Lord’s inheritance—the land and the people. David pleaded with Saul not to let his blood be poured out on foreign soil outside the Promised Land (26:20), that is, not to continue to force David to live in exile.

여호와와의 기업: 다윗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와의 기업(땅과 백성들)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피가 약속의 땅 바깥 이방 땅에서 흐르게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청했다 (26:20). 이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 F. **To seek a flea:** David asked Saul to put it all in perspective—he was exerting so much effort to kill someone as insignificant as flea in terms of his intention of harming Saul (26:20, cf. 24:14).

벼룩을 수색하러: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로 치자면 벼룩과 같은 자를 죽이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관점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26:20, 참고 24:14).

## V. SAUL’S LAST WORDS TO DAVID (1 SAM. 26:21-25)

###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지막 말 (삼상 26:21-25)

- A. Saul repented again when he learned that his life had again been in David’s hands (26:21). Saul’s confession here was much stronger than what he said in 24:16-22. Abner and 3000 soldiers heard Saul’s admission of sin and folly. The army could see that the Lord was with David.

사울은 자신의 생명이 또 다시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을 알고 또 다시 회개했다 (26:21). 여기서 사울은 24:16-22 에서보다 더 강한 어조로 고백했다. 아브넬과 3,000 명의 병사들은 사울이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 군대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up>21</sup>Then Saul said, “I have sinned. Return, my son David. For I will harm you no more, because my life was precious in your eyes this day. Indeed I have played the fool and erred exceedingly.”<sup>22</sup>And David answered and said, “Here is the king’s spear. Let one of the young men come over and get it. <sup>23</sup>May the LORD repay every man for his righteousness and his faithfulness; for the LORD delivered you into my hand today, but I would not stretch out my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sup>24</sup>And indeed, as your life was valued much this day in my eyes, so let my life be valued much in the eyes of the LORD, and let Him deliver me out of all tribulation.”<sup>25</sup>Then Saul said to David, “May you be blessed, my son David! You

*shall both do great things and also still prevail.” So David went on his way, and Saul returned to his place. (1 Sam. 26:21-25)*

<sup>21</sup>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sup>2</sup>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sup>23</sup>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sup>24</sup>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sup>25</sup>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상 26:21-25)

- B. **Return:** Saul asked David to return to Gibeah, promising to not harm him (26:21). Many intentions of one's conscience may be sincere, but they are superficial and lack follow through.

**돌아오라:**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윗이 기브아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26:21). 어떤 이의 양심의 많은 부분이 진실할지라도, 이것이 피상적이며, 계속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C. **David answered:** These were David's last words to Saul (26:22-24). David refused Saul's invitation to return to Gibeah because he did not trust him. He gave Saul's spear to a young man (26:22).

**다윗이 대답하되:** 이는 다윗이 사울에 한 마지막 말이었다 (26:22-24). 다윗은 사울이 기브아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사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울의 창을 한 소년에게 보내어 가져가게 했다 (26:22).

- D. **May the Lord repay every man:** David committed his cause into God's hands again (26:24) as he did in En Gedi (24:12, 15). This is the truth that David said the most in 1 & 2 Samuel (24:12, 15; 26:9-11, 23-24; 2 Sam. 2:1; 15:25; 16:11-12; 1 Chr. 12:17; 19:13; Ps. 31:5, 15). Asking the Lord to repay meant trusting Him to intervene to orchestrate the circumstances to establish His will in the conflict. David trusted the Lord as the just arbitrator to decide the right way for each party.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갚으시리니:** 다윗은 엔게디에서 그랬던 것처럼 (24:12, 15),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 (26:24). 이는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진리였다 (삼상 24:12, 15; 26:9-11, 23-24; 삼하 2:1; 15:25; 16:11-12; 대상 12:17; 19:13; 시 31:5, 15).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이끌어나가심으로 이 충돌 상황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세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해주시는 공정한 중재자이신 것을 신뢰했다.

<sup>12</sup> Let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let the LORD avenge me on you... <sup>15</sup> Let the LORD be judge, an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see and plead my case... (1 Sam. 24:12, 15)

<sup>12</sup>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 <sup>15</sup>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 (삼상 24:12, 15)



- E. **Be blessed:** In Saul's last words to David, he prophesied that David would have a great future and prevail in their conflict. Saul affirmed that David would be king (24:20) as Jonathan had (23:17). *No one could stop David from fulfilling the will of God for his life*—not Saul, nor the Philistines, nor Satan. The only man who could stop David was David, by resisting God's leadership in his life.

**복이 있을지라도:**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에서, 그는 다윗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울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23:17)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긍정했다 (24:20).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막을 수 없었다.** 사울도, 블레셋도,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을 막을 유일한 한 가지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었다.